

조선/기계/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2023. 7. 24 (월)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건화물운임(BDI)

978.0p(+1.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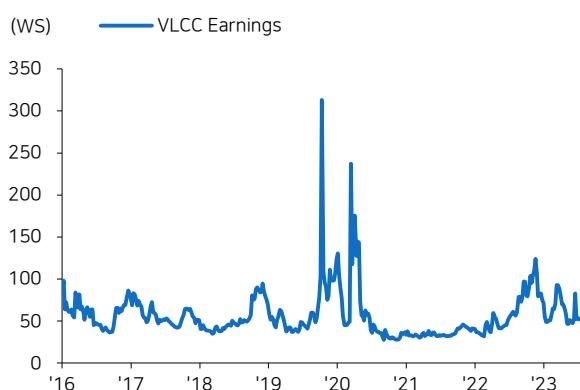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966.5p(-12.7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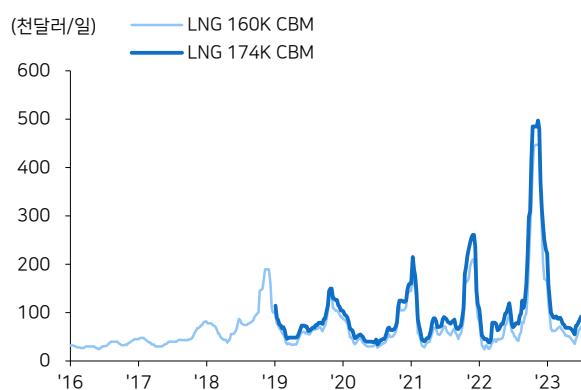
VLCC Spot Rate

51.1p(-0.5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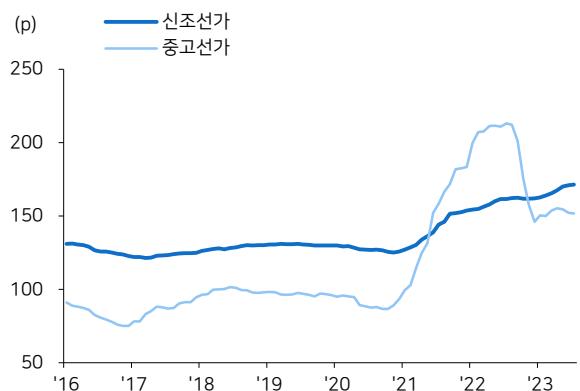
LNG Spot 운임

72.5천달러(+0.0천달러 WoW)
92.5천달러(+0.5천달러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72.1p(+0.4p WoW)
151.3p(-0.1p WoW)



중국 내수 후판가격

566.0달러(+0.0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US steps up sanctions against Russia's oil and gas sector

미국이 러시아 가스 및 석유 섹터를 타겟해 새로운 제재안을 발표했다고 보도됨. 천연가스 생산, 수송 및 시추를 제재하는 방안으로 언급됨. Nipigas, BK Eurasia와 Siberian Service Company 등 기업이 제재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고 알려짐. (Upstream) (<https://shorturl.at/bp024>)

Nigerian 'must do' FLNG project boosted as state oil company takes major stake

나이지리아 국영 NNPC가 UTM Offshore의 1.5MTPA급 FLNG 프로젝트 지분 20%를 매입하며 프로젝트 진행에 속도가 붙을 예정으로 보도됨. KBR, JGC와 Technip Energies가 EPC계약을 수주했는데, 아시아 지역의 조선소가 Hull을 건조할 예정으로 알려짐. 2026년 12월 가동될 예정으로, Bola Tinubu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언급됨. (Upstream) (<https://shorturl.at/jmvGM>)

안보리, 중국·개도국·서방 모두 러시아 곡물 협정 재개 압박

중국과 개발도상국, 서방이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전세계 식량 위기를 막기 위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됨. 또,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항구 공격이 민간 시설 공격을 금지하는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고 언급됨. (뉴시스) (<https://shorturl.at/aipuG>)

Baltic index logs 10% weekly drop as demand for larger vessel wilts away

Baltic Exchange의 BDI가 10% 하락했는데, 대형 선형 수요 하락에 기인한다고 보도됨. Capesize Index는 일주일간 약 13% 하락했다고 알려짐. 철광석 선물가격이 부동산 부문 침체와 철강 생산 제재로 하락했다고 언급됨. Panamax Index도 2.2% 하락했는데, 6주 연속 하락으로 알려짐. (Hellenic Shipping News) (<https://shorturl.at/aemIU>)

MOL doubles VLCC newbuilding wager in China

일본 MOL이 LNG DF VLCC 2척을 Dalian COSCO KHI Ship Engineering에 발주했다고 보도됨. 309,000DWT급 VLCC로 2022년에도 동일 선박을 2척 발주한 바 있음. 2025년 11월~2026년 12월 사이 인도될 예정으로 알려짐. 선가는 척당 약 1.3억달러 수준으로 언급됨. (Tradewinds) (<https://shorturl.at/euFOY>)

"안정적 조선인력 확보"…한화오션, 베트남 인력양성 지원한다

한화오션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와 '베트남 인력 양성과 채용 등을 위한 포괄적 협력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보도됨. 직업훈련 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짐. (뉴스1) (<https://shorturl.at/rlQ03>)